쉼 터

월드컵 경기가 남긴 교훈

김 정 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곳 고분자 학회지의 쉼터 난에 글을 기고하시는 분은 부산대에 하창식 교수님과 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하 교수님의 의견도 무거운 글을 쓰는 나에게 기운을 북돋워 주는 것 같아 기분은 좋다. 잠시 쉬어 가면서 우리의 문제점이나 재미난 일들에 대한 글들을 읽어 주시는 회원님들도 내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 이번에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여러 회원님들과 토의 아닌 토의를 하고 싶어진다. 이 지면을 통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대회였다고 기억된다. 가까운 미국 땅에서 텔레비젼 중계를 볼 수 없어서 한국의 경기가 있던 날이면 한국 학생들끼리 먼 곳에 위치하고 있던, 공공 체육관까지 가서 시청했던 기억이 새롭다. 특히, 이기지는 못했지만, 이탈리아 전에서 3대2로 아깝게 분패했던 기억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웬일일까? 그 시절 그때의 선수들이 지금은 축구 감독을 하고 있다. 그때도 비록 패하기는 했지만 최선을 다한 경기였다고 기억된다. 이제 월드컵에서 세계 4강까지 진출했으니, 그 당시 패했던 팀은 아니지만 축구 강국인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우리 태극전사들의 빛나는 투혼에 다시 한번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의 잠재력은 놀라울 정도로 높다. 이런 측면에서, 대 한민국에서 사는 내가 조금은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그런데, 놀라운 우리의 잠재력을 잘 결집시켜 진정한 선진국으로 이끌 지도자가 없어 보이는 것은 또한 웬일일까? 어떠한 모티브가 주어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서운 단결력을 보인다. 나라살림이 어려울 때 하염없이 때묻은 금반지도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면 주저 없이 내 놓을 수 있는 우리 국민이 아닌가? 우리 과학기술자들도 일종의 사회 지도층으로 치부되면서 이렇게 홀대받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최근 W세대라는 젊은이들로부터 이공계가 외면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본래 반도 국가의 사람들은 모든 일에 열정적이나 자기 일이 아니라 생각하면 철저히 외면해 버리는 속성이 있단다. 그래서, 그런 것을 두고 '냄비' 정신이라 하는가 보다. 좋게 표현하면 무관심이라 치부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은근과 끈기가 있다고 어릴 적 교과서에서 배운 기억이 새로운데, 어느 사이에 냄비 정신으로 팽배해 있는지를 모르겠다. 월드컵 대표팀 감독인 거스 히딩크는 우리나라 말중에 '빨리빨리'라는 말만 배운 것 같은 느낌이다. 주위의 한국 사람들이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참고 기다리는 은근한 옛 우리 선조들의 멋(?)이 사라진지 오래이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승리(?)하면 국가에 충신이요, 패배하면 삼족을 멸할 역적이 된다. 그러나, 1달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금방 그때의 일은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어이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곤 한다. 대통령 아들의 일들이 그렇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 합리보다는 적당주의가 판치는 형국이다.

그러니, 요즈음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이공계 기피현상 역시 '빨리빨리' 문화로부터 나오는 것 아닌지? 3년쯤 연구하면 세계를 놀라게 할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정부는 우리 연구자들을 들볶고, 3년 연구해서 놀라운 결과를 내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고의 국가가 되었을텐데..... 참고 기다려 주는 그러한 멋이 사라진지 오래이다.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하여 얻어진 결론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시하였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란다. 의사나 변호사는 공급을 조절하는 자신들의 기구가 있으나, 과학과 기술

계에서는 이를 통제할 기구가 없어 공급 초과 현상 때문에 과학기술자들이 천대받고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요즈음 젊은이들이 아니 우리 국민들이 계산이 얼마나 빠른가? 뻔히 망하는 길로 자기 자신과 자식들을 밀어 넣는다는 말인가? 그러니, 당근으로 장학금을 많이 주고, 군 문제도 해결해 준다고 이공계 기피현상이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공계 대학을 졸업하고도 실제로 먹고 살 수 있는 마땅한 자리가 없다는데 있다. 인건비의 상승으로 제조업은 3D 업종으로 치부되며 외면당하기에 값싼 노동력이 있는 개발 도상국으로 빠져 나가고, 제조업 공동화가 몇 년 후면 우리나라 장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는데, 그런 곳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단순히 피상적인 당근으로 속이려 해도 별무소득일 것이다. 그래서 며칠전 대학총장님들이 충정 어린 요청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올린 것이다. '학부제'의 허구성 (기초 학문의 황폐화의 지름길임)을 알려야 하였기에.

인적 자원의 교육은 백년 앞을 봐야 하는데, 조령모개 식이다. 사상 누각 건설에 총 매진하고 있다. 기초지식 없이 '노벨상'을 타야 한다고 과학기술계에 압력을 가하고, 시골 대학에는 대학원생이 없어 연구 결과를 낼 수 없는데도 SCI에 등재된 잡지에 논문을 실어야 평가를 잘 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야 남보다 우수하다는 평가 (명예)도 받고, 월급도 많아진다는 것이다 (부도 누린다). 일률적 잣대로 모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한다. 아무개는 수학은 못하지만 그림 하나만은 누구 못지 않게 잘 그린다. 영어는 못하지만 수학 하나만은 천재인 사람이 인정받을 때, 진정 선진국 교육 방향이 될텐데..... 반 풍수 집안 망치는 식이 되지 말고,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형국이 되지는 말았으면..... 한가지 일에 남보다 뛰어난 것이 없고, 다방면에 만능 선수가 되라고 독촉하고 있다. 이공계 출신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지가 못한데도 말이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조급하게 만들었을까? 이것이 편의주의로부터의 발상이다. 방향만 제시하고, 가만히 놔두면 오히려 우열이 가려질 것을.....

한가지, 초등학교 졸업하고 육법전서 외어서 사법고시 합격하여 법관이 될 수 있는 나라, 인간성이야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중고시절 멋있는 친구들이 없어도 법관이나 변호사만 되면 만사형통인 나라, 20년을 같은 분야에서 공부해도 끝이 없는 학문 분야에서 불철 주야 노력해도 아무런 댓가도 받지 못하고, 경영 악화에 의해 구조 조정 1순위인 연구자들이 고통받는 나라, 무엇을 위하여, 이공계를 많이 지원하여 많은 인력이 배출되어 부강한 국가가 될 것인지 알 수 없는 나라,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게 만드는 나라, 이러한 의심들이 지워지지 않는 한 엑소더스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튼 히딩크 감독처럼 학연, 지연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 줄 수 있는 지도자(명예와 부를 초개같이 버릴 수 있는 사람)가 나와 우리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킬 것인가를 연구해봐야 하지 않을까?